

게이밍기기 제조 '국내 1위' 스마트단말 사업 잇단 수주

IPO 간담회

앱코

코로나발 언택트 시대 수요 ↑ 상반기 매출 740억 역대 최대
아마존 개척 통해 해외 진출도



18일 오후 앱코 대표이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 상황에 따른 향후 성장 전략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R비즈넷

게이밍 기기 국내 1위 제조업체 앱코가 12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앱코는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앱코는 게이밍 기기(게임용 키보드·마우스·헤드셋 및 PC 케이스 등), 소형가전, 음향가전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사업인 게이밍 기기는 최근 PC게임의 고사양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 트렌드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앱코의 매출액은 2017년 473억원, 2018년 663억원, 2019년 843억원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740억원, 영업이익 128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오광근 앱코 대표이사는 "게이밍 기기 사업은 PC방 운영자의 수요를 직접 조사해 PC방에 가장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며 "앱코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 프로세스를 사업 초기부터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업 프로세스를 해외 진출의 교두보인 미국 아마존 시장 개척 및 신규사업 확장에도 적용해 단기간에 터너라운드를 이뤄냄으로써 국내외에서 높은 매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앱코는 소형가전 '오엘라'와 음향기기 '비토닉' 사업을 점유하고 있다. 오엘라는 지난해 옥실 무선청소기, 전동마사지건을 출시한 이후 50여종의 제품을 개발, 출시했다. 비토닉은 틸테이블 블루투스스피커, 소형 블루투스스피커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 앱코는 실시간 동기화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 단말기 충전함 시스템 'PADBANK'를 개발했다. 자료 자동 동기화 소프트웨어 특허를 가졌으며, 지난 2017년부터 총 5차까지 진행된 '학교 스마트단말 도입 시범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이사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단말 도입사업' 본사업이 앞당겨지면서 충전함 시장 규모는 2025년 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앱코의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로 총 공모주식수는 250만7000주다. 공모가 밴드는 2만1400원~2만4300원이다. 오는 17~18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된 후, 23~24일 일반 청약 받는다. 코스닥 상장은 12월 2일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목동7단지, 1차 안전진단 통과 호가 최고 2억 오른 매물 등장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D등급'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 호가 상승

목동6단지 단지 최초 재건축 통과 5·11·13단지는 적정성 검토 중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아파트가 지난 17일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목동 7단지 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1차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호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목동7단지 전용면적 66.60㎡는 16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올해 초 14억5000만원에 팔린 이 아파트는 호가가 2억3000만원이 올랐다. 전용면적 53.88㎡는 지난 8월 13억4000만원에 팔린 후 호가 8000만원이 오른 14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목동7단지는 지난 17일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51.11점) 판정을 받았다. 안전진단은 단지의 구조적 안전성과 노후도·주거환경 등을 살펴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재건축 초기 단계 절차로 통과해야 정비계획수립 등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는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뉜다.

D등급은 100점 만점 가운데 31~55점에 해당하며 추후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앞서 목동7단지는 지난 9월 말 목동9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하자 지난달 동 외벽에 재건축 통과를 촉구하는 붉은색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7단지 안전진단 등급이 51.11점으로 6단지 1차 안전진단 점수(D등급, 51.22점) 보다 낮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이 많이 커진 상태다"라며 "현재 남은

5단지와 11단지의 2차 안전진단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목동6단지는 지난 6월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며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관문을 통과했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중엔 5·11·13단지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한 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9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유지보수·58점)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이 단지는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기대감이 컸지만 한국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LH,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

기관별 업무, 사업비 분담 등 규정 기존 여가 중심서 요양·돌봄 더해



올해부터는 정부정책(주거복지2.0)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기존 여가와 문화활동 중심의 서비스에 요양·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더해 서비스를 품질을 한층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LH가 지난 5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주시 ▲남해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해시 ▲울산광역시 ▲과천시 ▲평택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8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시공 및 준공 후 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각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 및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요양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복지주택 2.0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 강화 전격음

소비자 자문기구 S-프렌즈 신설



신한금융투자가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 자문기구 'S-프렌즈'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S-프렌즈'는 투자상품 외부전문가 자문단과 일반고객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법률·회계·부동산·리스크 등 분야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은 상품 출시 전 외부의 시각으로 리스크요인을 검증한다. 주부·고령자·회사원·대학생 등 10인으로 구성된 일반고객 자문단은 고객 관점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품과 서비스 업무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조직, 제도, 기업문화의 근본적 체질을 고객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힘쓰고 있다. 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두고, 상품심사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을 소비자보호본부로 일원화했다. 신설된 'S-프렌즈'도 소비자보호본부의 고객중심 정책의 일환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소비자 자문기구 'S-프렌즈'는 고객 관점에서 모든 업무를 재정의하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내·외부 시각에서 이중 검증을 통해 고객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미래에셋대우, 유튜브 '스마트머니' 구독자 10만 돌파

증권업계 최초 성과

미래에셋대우는 대표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 구독자가 증권업계 최초로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튜브채널 스마트머니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누적 조회 수 약 1726만건을 기록했다.

스마트머니는 미래에셋대우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슈퍼스타, 글로벌 이슈 체크 등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연금, 부동산, 세무 이슈 등 주식



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산관리 전반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 모두를 아우르는 콘텐츠의 제

공에 힘쓰고 있다. '주린이를 위한 실전투자 따라하기'를 통해 초보자의 해외주식 투자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며 'ETF로 부자 되는 투자자의장-이부장'에서는 김일중 아나운서와 함께 ETF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유쾌하게 풀어냈다.

/송태화기자 avin@